국외출장 복명서

부서명/사업단명: 형사법연구센터/형사법개정연구사업단

직급: 부연구위원

성명: 황만성

출장기간:

2007년 8월 13일(월) ~ 8월 20일(월) (7박8일)

방문국 : 일본

출장목적

2007년도 일반연구사업인 “형사법개정연구 II” 수행과 관련하여,
2001년 이후 7차례의 개정을 거치고 있는 일본형법의 개정경과와 논의내용을
살펴보고, 관련 전문가로부터의 자문과 자료수집을 위함.

출장내용

○ 2007년의 “형사법개정연구 II” 사업은 2006년에 이은 연속연구 사업으로서
1차년도에는 형법총칙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, 2차년도인 2007년
의 본 연구는 형법각칙분야를 중심으로 개정, 신설, 폐지 등이 논의되고 있는 주
요쟁점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.

○ 형사법개정연구의 내용의 일부분으로서 ‘주요 국가의 형법개정 동향(자료)’ 연구와 관련하여 2001년 이후 7차례의 형법개정을 거치고 있는 일본의 개정동향과 내용, 개정을 둘러싼 논의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출장국가를 일본으로 정함.

○ 동경대학 법학대학원 및 도서관 방문

- 2001년 지불용카드 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를 신설한 2001년의 형법개정을 비롯하여,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신설, 국외범규정의 확대, 법정형의 상향조정 및 인신에 대한 죄의 벌칙 강화, 약취유인죄의 벌칙강화, 인신매매죄의 신설, 절도죄에 대한 벌금형의 추가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함.
- 특히, 오타 쇼조(太田勝造, 東京大 教授)교수와의 면담을 통하여 일본 근대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 관한 설명과 아울러 세계화로서의 법적 논의의 구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접할 수 있었음.

○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방문

- 법무총합연구소(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)는 법무성 산하의 연구·연수 기관으로서, 그 조직은 총무기획부, 연구부, 연수부, 국제연합 연수협력부 및 국제 협력부의 5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번에 방문한 연구부는 범죄예방과 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시책의 입안에 기여하기 위한 종합적인 형사정책에 관한 조사·연구를 하고 있음.
- 법무총합연구소에서 최근의 형사입법에 의한 범죄의 통계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. 특히, 2000년 제정된 스토킹규제법이나 2001년의 배우자폭력방지법에 위반하는 경우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,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음.

○ 상지대학 법학대학원 및 도서관 방문

- 2003년 제정된 심신상실자 의료관찰법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살인, 방화, 강도, 강간 등의 중대범죄를 행한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되거나 하는 경우에 검찰의 신청에 의해 판사 및 정신과 의사 각 1명으로 구성된 법원이 심리하여, 입원·통원 그 외 적절한 처우를 정하도록 한 것임.
- 우리나라와 달리 치료감호제도가 없었던 일본이 심신상실범죄자 등에 의한 개별처우의 필요성에서 논의되었던 위 법률에 관하여, 이 분야의 전문가인 상지대학의 町野 朔(마찌노 사쿠) 교수와 면담함.